

2026 동구 도서추천단 북술령 가이드 모집한다

대전 동구는 책을 사랑하고 글쓰기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2026년 동구 도서추천단 '북술령 가이드'를 모집한다.

'북술령 가이드'는 구민이 직접 우수 도서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도서 정보를 공유해 '텍스트 힙(Text-Hip)'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독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발된 도서추천단은 매월 우수 도서를 발굴하고 추천 도서 목록과 서평을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작성된 콘텐츠는 추천단 개인 SNS와 도서관 내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될 예정이다.

도서추천단 모집은 이달 10일부터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동구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도서추천단의 활동이 구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독서 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채봉 기자

규제완화 결실 'cafe the 청남대' 1주년 기념행사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상수원보호 규제 완화의 결실로 문을 연 'Cafe The 청남대'의 1주년을 기념행사를 열었다.

'Cafe The 청남대' 1주년 기념행사는 휴게 음식점 위생등급 '최고 등급' 지정 현판 제막식과 함께 클래식 음악회, 청남대 신규 커피 시음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김영한 충북 도지사가 일일 카페 점장으로 손님들에게 커피 서빙을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Cafe The 청남대'는 2024년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 끝에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11일 개점한 청남대의 공식 휴게음식점이다.

또한, 조성 단계부터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와의 논의를 통해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개점 후에는 친환경 포장재·다회용기 사용 등 다양한 위생·환경 보호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 인증도 획득했다. 이는 시설 위생, 종사자 위생, 조리 과정의 안전성, 청결도 등 종합적인 위생 관리 수준이 정부 기준을 상회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환경규제 속에서 공공시설로서 위생 신뢰도를 제도적으로 인정 받은 첫 사례이다. 강혜경 소장은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청남대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충남 천수만서 비상하는 'K-미래항공'

충청남도, 글로벌 방산기업 등과 미래항공산업 육성·투자 촉진 위한 협약



2026. 2. 10.(화) 충청남도, 글로벌 방산기업 등과 미래항공산업 육성·투자 촉진 위한 협약

전력 공급 등 기업 유치 기반 구축, 기업 투자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미래항공 연구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신축하고 관련 기업들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국방미래항공 연구센터, 특화산단,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협력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입법·정책적 지원을 편다.

대한항공 등 4개 기업은 각 기관의 지원을 토대로, 국방미래항공 연구센터 인근 지역을 미래항공 연구·설증·제조 거점을 활용하고, 신규 시설 투자 방안을 검토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한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성일종 국회 의원,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대한항공·LIG넥스원·한국항공 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 참여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항공 산업 육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태안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국방미래항

공연구센터 연계 기업 지원 인프라를 토대로, 미래항공산업 전략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 기관 및 기업은 우선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연구 및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 △중앙·지방정부 및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력 △공공·민간 투자 예산 확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연계 특화산업단지 조성,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용수·

전력 공급 등 기업 유치 기반 구축, 기업 투자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미래항공 연구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신축하고 관련 기업들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국방미래항공 연구센터, 특화산단,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협력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입법·정책적 지원을 편다.

대한항공 등 4개 기업은 각 기관의 지원을 토대로, 국방미래항공 연구센터 인근 지역을 미래항공 연구·설증·제조 거점을 활용하고, 신규 시설 투자 방안을 검토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한다.

김태흠 지사는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들의 태안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한편,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3294억 원을 투입, 태안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건립 한다.

이현진 기자

미래농업 청년농업인과 현장 소통

소통간담회 개최, 올해 추진 사업 설명·현장 의견 수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 농업인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청년 농업인 15여 명과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올해 청년 농업인 대상 주요 사업인 ▲국외연수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구축 지원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영농대행 지원 ▲소통연수 등을 설명했다. 이후 청년 농업인과 함께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검토·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회진 도농상생국장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청년 농업인들은 우리 농업을 다시 뛰어 할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농업에서 새로

운 기회를 찾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 방문으로 청년 농업인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하는 첨단 기업에게 최대 4500만 원의 임차료와 공사비가 지원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2026년 세종테크밸리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미래전략산업 5+1(정보보호·미래모빌리티·디지털콘텐츠·디지털헬스케어·방송영상미디어·양자) 분야에 해당하면서 세종 외 지역에서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본사와 공장·연구소다.

지원기업은 연 2,000만 원씩 2년간 총 4,000만 원의 임차료와 사무실 조성을 위한 내부 공사비를 최초 1회에 한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채봉 기자

대전시 공유재산·민생경제 간담회



장애인 '일하는 밥퍼' 참여자 400명 돌파해

장애인 자립·지역 상생! 전 시군 시행, 높은 만족도로 장애인 친화형 복지모델로

장애인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자가 지난 2월 5일 기준으로 누적 46,175명, 일일 400명을 돌파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상생을 실현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지역의 농가와 기업 등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코자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농산물 전처리, 공산품의 간단한 조립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3시간의 봉사활동 후에는 봉사 실적 인정과 소정의 활동비(15,000원)가 주어지게 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일방적인 복지 수혜자로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자부심과 입지를 높여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6.0%가 사업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생활 활력 향상(86.6%)과 스트레스 감소(78.6%)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여 이전에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는 응답이 41.6%에 달 했으나, 사업 참여 이후 규칙적인 외부 활동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일상 변화와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하는 밥퍼 사업이 일을 통한 사회참여에 중점을 둔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역할과 가치를 체감하며 자존감 회복과 일상 활력 증진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에 참여중인 A 씨(40대/여)는 "밥퍼에 참여하면서 매일 해야 할 일이 생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북도는 일하는 밥퍼 사업이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회복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일하는 밥퍼 사업은 현재 11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회관, 장애인단체 사무실, 종교단체 등 16개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25년 12월 말에는 장애인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장애인 20여 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봉사와 생산적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일하는 밥퍼의 의미를 더욱 빛내 주고 있다. 우영미 과장은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에도 2025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경감 추진 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네이버,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나온 오피스텔(공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임대인)을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확산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실 매물이라 해도 타인에게 쉽게 출입문 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이와 유사한 사기 정황이 감지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빠르게 맞추어 2026년

이채봉 기자

소망을 담아, 새로운 시작을!

설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꿈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